



**[산업]**  
인텔이 공개한 차세대기술  
내장형 M램  
삼성엔 상용화 '초격차'  
05



**[산업]**  
5년만에 풀체인지  
8세대 쏘나타  
구원투수 특명  
06



# 인적 끊긴 서울로7017... '임대료 상승' 주변 상인만 피해

일평균 방문객 전년비 42.1% 줄어  
연결성 관점서 협력체계 구축해야

지난해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의 방문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만리동, 서계동, 중립동 등 서울로 일대 상점 매출도 감소해 당초 기대했던 경제적 파급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서울로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근 지역과 연계해 상인들과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로의 일평균 방문객은 1만9062명으로 전년 3만 2954명과 비교해 42.1% 줄었다.

서울로는 기존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행길로 재생해 만든 것으로 2017년 5월 20일 개장했다. 버려진 철도 고가도로에 꽃과 나무를 심어 도심 공중정원으로 거듭난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벤치마킹했다.

시는 지난해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로 방문객이 천만명을 돌파했다"며 "서

서울로7017 하루 평균 방문객 현황 단위: 명



자료/서울시

서울로가 지역재생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지역 주민과 인근 상인들에게는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장 이후 서울로의 방문객 수는 급감했다. 상인들도 매출이 줄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로 방문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로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1만3892명 감소했다. 개장 효과가 사라지자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년 동안의 방문객 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큰 편차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울로 방문객 수는 2017년 741만4591명, 2018년 659만7901

명으로 약 6%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옳은 비교가 아니다. 지난해 서울로 운영일수가 약 130일 정도 더 많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6~12월)을 놓고 비교해 보면 2017년 방문객수는 648만4610명, 2018년은 404만3096명으로 37%(244만 1514명) 줄었다.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42%까지 차이가 난다.

서울로가 들어선 이후 매출이 줄었다는 상인도 많았다. 서울연구원이 201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로 주변 지역의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다수가 매출이 감소

했다고 답했다. 업소 방문객의 변화는 2.88, 매출 및 수입 변화는 2.81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1: 10%이상 '매우 감소', 2: 5~10% '감소', 3: '변화없음', 4: 5~10% '증가', 5: 10%이상 '매우 증가')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늘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로 조성 이후 2017년 11월까지 자가임대료가 가장 크게 상승한 지역은 중립동(4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대문시장(16.5%), 지역전반(15.7%), 서울역광장 주변(14%), 회현동 지역(6.6%), 만리동 지역(2.5%)이 뒤를 이었다.

국가지역경쟁력연구회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연구 용역 보고서, '서울로의 운영 실태와 파급효과 제고 방안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은 "상인들은 '고가 도로가 사라져 오후부터 회현역 주변 도로가 심각하게 막히고, 버스노선도 줄어들어 유동 인구가 이전보다 더 적어진 것 같다'고 응답했다"며 "또 '서울로에 연결되는 호텔 마누나 대우재단 빌딩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돼 수입과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 같다', '건물 주변 사람들이 새 상권으로 유입돼 버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인근 지역과 서울로의 연계가 부족하고, 협력체계도 잘 구축돼 있지 않다"며 "연결성 관점에서 주변 관련 조직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재생본부에서 '골목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서울로를 중심으로 청과동, 서계동, 중립동 골목길과 연계해 특색있는 골목길을 만드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설계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과 제주, 상반된 하늘색

수도권 지역에 옛새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6일 이후 서울 남산서 바라본 도심(위)과 제주 도두동 해안도로에서 바라본 하늘. 이날 제주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했다. /연합뉴스

## 임진각-판문점 '평화모노레일' 달린다

경기관광공사  
모노레일로 관광 활성화

경기관광공사가 임진각평화누리에서 판문점까지 달리는 첨단 '평화 모노레일' (가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평화 모노레일은 이재명 도시사의 '한반도 평화중심, 경기도' 정책과 발맞춰, 임진각과 판문점을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 관광자원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이다.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최첨단 관광형 모노레일이다. 임진각-판문점 구간 총 11 Km를 운행하며, 역사는 임진각역-분단의역-평화의역-판문점역 총 4곳이다.

역사마다 차별화 된 관광요소를 도입한다. 임진각 역은 사전등록, 교육, 편의 시설 중심의 승차장으로, 임진각평화누리 수풀누리(습지체험학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된다. 분단의 역은 전쟁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시행하게되는 모노레일(안)

/경기도

아름 갈등을 주제로 한 체험과 전시가 이뤄지며, 평화의 역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을 활용해 분단에서 평화의 장소가 된 DMZ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판문점 역은 면세점, 북한 음식, 특산품 등을 즐길 수 있다.

모노레일 자체도 즐길거리다. 객차의 좌우와 아래 삼면을 투명강화유리로 제

작, 이동 중에도 약 70년 간 보전 된 DMZ의 속살을 감상할 수 있다. 또 특수 제작된 유리에서 나오는 영상을 통해 DMZ의 역사와 통일 대한민국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공사는 이 평화 모노레일을 단계적으로 개성 송악산까지 확대 연장 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서울시, 초등돌봄 강화... 키움센터 확충

초등학생 대상 '우리동네 키움센터' 2022년까지 400곳 확충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400곳으로 늘린다고 6일 밝혔다.

학교를 마친 후 갈 곳이 없어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에게는 친구와 놀면서 쉴 공간을 만들어 주고, 맞벌이 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 보편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기존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취약 아동으로 이용대상이 한정된 것과 달리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전체 초등학생(만 6~12세)이 대상이다. 이용료는 10만원 이하다.

'서울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 구축 ▲양육가정의 고립육아 해소를 위한 아이 돌봄서비스망 강화 ▲돌봄자원 전달체계 개선의 3개 분야로 추진된다. /김현정 기자

## 코엑스~잠실운동장 '국제 교류복합지구'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착수

서울시는 '서울 국제 교류복합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내년까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서울 국제 교류복합지구(SID) 199만 m²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 보행,

교통, 경관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국제 교류복합지구 조성 주요 사업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 C,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도로 개선, 한강·탄천 정비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용도·밀도 등 토지이용 ▲보행·자전거 환경 개선 ▲주요도로·한강·탄천

변 경관 개선 및 인접지역 높이 관리 ▲교통개선대책 등의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관리계획은 2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1년 차인 올해 도시변화 모니터링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도시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2년 차인 내년에는 세부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용자 설문조사, 도시관리계획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김현정 기자